

# 초탈자의 무애자재한 사랑 담는다

## 오페라 '원효'

'98 경주 문화엑스포 기념행사  
경주 불국사 가람 배경으로  
1300년전 초월적 사랑이야기  
9월 18~20일 그믐 밤하늘 아래  
301명의 성악가·연기자들 재현



▷대구시립오페라단 단원들이 더위도 잊은채 1300년전 원효스님의 무애자재한 자비행과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페라 '원효'를 연습하고 있다.

"당신의 높은 뜻 어찌 모르리오만 울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몸 가진 우리는 어이하리까, 어이하리까, 대사님..."  
"가야하오 시작이 있으되 끝이 없는 저 길 가야하오 무애 무애 무애..."  
예뻐한 사람, 원효스님을 붙잡으려는 요석공주의 절절한 아리아와 목직인 테너로 울려 퍼지는 원효스님의 무애가(無礙歌).  
1300년전 신라의 도움 경주 저잣거리에서 뛰놀며 두드러며 무애가를 불렀던 원효스님, 거지들의 소굴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고 요석공주와의 하룻밤 사랑 이야기를 남겼던 원효스님이 강주에 환생한다.  
오페라 '원효'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하루 한차례씩 불국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공연된다. 대구시립오페라단이 천년 고찰을 배경으로 펼쳐는 천년전의 사랑 이야기, 중생도를 위해 한 몸을 온전히 던지는 초탈자의 무애자재한 사랑과 그를 사랑하는 공주의 예뻐한 사랑이 오페라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전망이다.  
'98 경주 문화엑스포 기념 행사로 마련되는 오페라 '원효'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한 여름의 더위를 마다 않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대구시립오페라단 단원들, 그 연습 현장을 엿보지만 해도 푸르른 신라의 하늘 가득 뒤편박 소리를 띄워 놓고 "무애 무애..."를 외치는 원효스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층 연습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씩 신라의 땅이 된다. 목걸이를 타고 내리는 굵은 땀방울을 연신 흘리며 잠시도 악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성악가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벌써 두달째 이어지는 연습을 통해 단원들은 오페라 전체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했다. 다음달까지 성악과 합창, 교향악단이 따로 연습을 하고 공연 보름전부터는 하루 8시간씩 합동연습을 할 계획이다.  
연출가 김효경(서울예전)교수는 "이번 공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된다"면서 "충분한 연습으로 연기자의 팀워크를 최대한 살려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대 장치나 조명 등 부대설치에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형상화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연 조연급 성악가 32명과 성악연기자 10명, 아역연기자 2명, 특수연기자 3명 합창단 1백20명, 교향악단 75명 제작진 60명 등 연인원 3백1명이 동원되는 오페라 '원효'는 대구 경북지역 음악인들이 총출연하는 한바탕의 진치이기도 하다. 주연과 조연에 캐스팅된 성악가 모두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주시립합창단과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호흡도 전치를 더욱 짐입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무대라는 특징을 살리는 것도 이번 공연의 큰 묘미다. 불국사 경내에 설치되는 무대는 사찰 그 자체를 훌륭한 무대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제작진은 공연 일정이 گرم함으로 잡혔다는 점을 활용, 특수 조명을 통한 환상적 분위기를 창출해 관객을 1천3백년전의 신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귀담.  
무엇보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동식 무대장치가 돋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막으로 구성된 작품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막을 다른 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를 동서남북 4방향에 따로 배치한다. 이는 청운교 백운교 등 불국사 경내의 건축물을 무대 뒷배경



▷1971년 김자경오페라단에 의해 초연된 오페라 '원효'. 올 9월 공연에서는 초연때 원효스님 역을 맡았던 김원경씨가 27년만에 다시 원효스님역을 맡게 된다.



▷1986년 클로리아오페라단의 공연 장면. 무대왕이 원효스님(왼쪽)에게 요석공주의 예뻐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중생에 머물 것을 청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 오페라 '원효' 어떤 작품인가 원효스님의 수행과 자비 그려 장일남씨 4년간 창작 심혈

불교 오페라의 대표작인 '원효'는 '비극'으로 널리 알려진 장일남씨(한양대교수)가 1971년 법정스님의 조언과 도움으로 4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다.  
모두 4막인 '원효'의 제1막은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구법 여행을 기다리던 밤중에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아침에 도를 얻게 된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어 4월 초파일 연등놀이와 한창인 경주 분황사를 배경으로 원효와 요석공주, 요석을 사모하는 거칠마루 장군등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원효스님이 대인스님의 뜻을 따라 중생 구제를 위해 저잣거리로 나간 뒤 요석이 원효스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짓는 대목이 감동적이다. 중생을 향한 원효의 큰 사랑과 원효스님을 사모하는 요석의 사랑이 자아내는 애절한 눈물길도꼭 아름답다.  
제3막은 갈루삼에 눈이 먼 거칠마루가 원효를 살해하기 위해 보낸 자객들을 물리친 뒤 요석공주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방목에 묶여 요석공주로 끌려가면서도 무애자재한 원효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리고 4막에서는 요석공에 이르러 공주의 사랑을 받아 들이는 장면. 요석공을 나와 은네밭에서 거지와 과 어울려 무애행을 펼치고, 아들 설총을 안고 나타나 세속의 영화를 함께 누리길 원하는 요석을 거절한 채 뒤편박을 두드리며 한창 "무애가"를 부르며 사라져 가는 원효스님의 뒷모습 등이 애절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다.

오페라 '원효'는 1971년 김자경 오페라단에 의해 처음 무대에 올랐던 이후 24년만에 클로리아 오페라단에 의해 서울에서 두번째로 무대에 올랐었다. 9월 경주 공연은 처음으로 야외무대에서 공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곡가 장일남씨가 불국사 석굴암에서 힘겨다 완성한 이 작품의 시범적 공연을 위해 불국사 무대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게 된 것과 초연때 원효역을 맡았던 김원경씨(계명대 음대학장)가 27년 만에 다시 원효 역을 맡게 된 것도 재미를 더하고 있다.



▷장일남씨

### 인터넷 오페라 '원효' 예술감독 김완준씨



"올 가을 공연되는 오페라 '원효'는 우리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도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비와 초탈의 사랑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페라 '원효'의 연습장에서 단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체크하며 성공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김완준 예술감독. 그는 야외무대에서 공연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선의 연습으로 완벽한 공연을 창출해 낼 자신에 차 있다. "올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그에게 더 고마운 일은 종교가 다른 단원들이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종교적 편견을 털어 버린것이라 귀하게 준다. 그 역시 가톨릭 신자로서 원효스님을 오페라의 주인공이 아닌 시대의 스승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가 반납 연습물두 단원에 감사"  
"중생구제 보살행 극적 표현 역점"  
"오페라 '원효'는 외국의 오페라와는 달리 전설이나 세속적 사랑을 초월한 고도의 정신세계가 표출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원효스님의 무애행이 더욱 절실한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절렬없는 사랑, 즉 자비의 행위로 이어지는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주 문화엑스포 공연 오페라로 '원효'와 '처음' 두 작품이 거론됐지만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신라의 정서를 제대로 알리는 데는 '원효'가 제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배경도 김감독에게는 불국사 야외무대에서 원효스님을 환생 시키는 데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